

宗 訓  
忠孝·德禮·勤謹·恭儉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며  
형제우애하고 덕을 닦고 예의를 익혀  
남을 존경하며 부지런하고 공경한  
마음으로 성실하고 겸소한 삶을 살지  
않다

# 淸州韓氏報

發行人 韓台洛  
編輯人兼  
主幹 韓鍾仁  
印刷人 裴成漢  
1976년 11월 1일 창간

제 282 호

(우:03173)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3길 30, 602호 (내수동 세종로 대우빌딩 복합동)

[www.cheongjuhan.net](http://www.cheongjuhan.net)

Tel : 720-6370~1 Fax : 720-9215

2026년 1월 10일 토요일

謹賀新年

## 2026년, 중앙종친회 창립 80주년

풍부한 경험과 지혜를 모아 시조탄생지 성역화사업 완수의 해로…



존경하는 청주한문의 100만 종원 여러분!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늘에도 태양이 뜨고 땅에도 불이 붙은 형상으로 그야말로 불 위에 불이라 불리는 강력한 양(陽)의 기운이 폭발하는 큰 희망을 주는 붉은 말의 해를 맞아 복 많이 받으시고 준마도약(駿馬跳躍)하는 한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을사년 한 해는 정치, 경제, 사회 등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친 실로 다사다난한 한해였습니다. 특히 비상계엄 사태에 이은 대통령의 탄핵, 극한 정쟁과 대립, 고물가, 고환율 속에 경기는 위축되었고, 강대국 간의 대립과 충돌, 자국 우선주의의 정책 지향 등 대외 변수의 확대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심기일전 슬기롭게 대처하고 붉은 말이라는 상징처럼 활력과 열정, 새로운 변화와 사고의 전환으로 알찬 결실과 더불어 종원 모두가 건강하시고 만사 협통하는 축복의 병오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6년은 우리 중앙종친회가 창립된지 8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사회에서 80세는 단순한 숫자를 넘어 풍부한 경험과 지혜로 가족과 사회에 많은 기여를 해왔기에 깊은 존경과 축복의 의미를 담고 있는 나이입니다. 우리는 대화하고 뜻깊은 성과로 삼한갑족 명문 성씨의 위상을 더 높혀 진일보하고

종사기반 또한 더욱 견고히 다져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중앙종친회는 보람된 결실을 맺는 한해가 되도록 일가 분들과 함께 종사과업 수행에 최선의 노력으로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조탄생지 성역화사업을 완수하고 청주한문의 위상 제고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앙종친회는 시조묘소 및 유적의 수호보전, 세향봉행, 숭조돈종사상의 합양, 종원의 교양과 도의 양양, 후손에 대한 장학과 계도 및 문화의 창달로 한문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청주한문을 대표하는 조직입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숭조 선양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특히 금년에는 중점과업으로 추진 중인 시조부군 탄생지의 성역화사업을 명실상부 청주한문의 위상에 걸맞는 결실을 맺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시조께서 탄생하신 생가터는 매입을 완료하여 복원을 마쳤고 전문기관의 자문을 통해 청주한문의 역사관과 부대시설 등을 건립하는 후속사업을 금년도 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많은 재원이 수반되고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대역사(大役事)입니다. 전국의 모든 종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총화단결하여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될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시조부군의 유서깊은 유적지인 방정의 복원과 공원화사업도 청주방정보존회와 일가분의 노력과 성원으로 금년도 완공을 목표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업이 완공되면 충북 청주권의 8대 명당 중 유품으로 손꼽히는 시조 묘역을 중심으로 무농정, 방정, 시조제단비가 있는 청주한씨역사공원에 이어 영동권의 청한각, 역사관, 강당터 등 시

조부군의 생애 활동 유물과 유적 등을 성역화하고 벨트화하여 일반인은 물론 우리 청주한문 후손들이 즐겨찾고 탐방하는 관광명소화 권역으로 구축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선조님의 유적과 시설물 또한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감은 물론 청주한씨의 원류인 마한태조무강왕릉이라는 사실이 자명한 익산시 석왕동 소재 사적 제87호인 익산 쌍릉의 대왕릉과 소왕릉의 수호 보전에도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회합 돈목하고 내실을 다지는 종사 운영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종친회는 친족집단으로 통합을 추구하고 이해관계가 아닌 한 시조를 근간으로 성과 본이 같은 일가불이끼리의 모임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가 되는 숭조돈목을 가장 큰 덕목으로 삼고 있는 협력적인 조직입니다. 일부 상반된 견해가 있더라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합리적인 판단이 우선시 되는 종친회 풍토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앙종친회는 수익종재가 없어 종사운영과 사업추진에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종파문중과 광역시도를 중심으로 조직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유명무실한 조직은 재건토록 적극 지원하고, 향후 한문의 주축이 될 청장년조직을 활성화 하여 종사 참여의 폭을 다양한 계층으로 넓히고 확충하여 종사발전을 도모하고 운영재원 조달과 발전기금 적립에도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학사업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교육은 백년대계이고 장학사업은 미래를 위한 가장 현명한 투자입니다.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후손들이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돋는 교육 안전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뜻을 하나로 모아 선대로부터 계승된 위업과 고귀한 유지를 받들고 거듭나 한문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고 후손들을 훌륭한 인재로 육성하고 국가의 동량으로 키워 그 명성을 더욱 빛낼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훌륭한 후손을 육성하는 장학사업은 우리가 수행해야 할 많은 종사가운데 가장 중요한 유품 사업의 하나이자 활성화해야 할 선결과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청주한문의 위상에 걸맞는 장학재단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장학기금을 확충하고 내실있는 운영과 수혜의 폭을 넓혀 청주한문의 인재를 양성함에 더 많은 값진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일가여러분!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나 하나의 힘이 모이면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많은 어려움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심기일전 희망을 갖고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명문가문의 후예라는 자랑스러운 긍지로 청주한문이 대화합하고 한 단계 더 도약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중앙종친회가 구심체 역할을 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청주한문 일가여러분!

2026년 병오년 붉은 말의 해, 목표를 향해 과감히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위대한 결과에는 항상 눈에 보이지 않는 세밀하고 치밀한 준비의 과정이 존재합니다. 일의 성패는 작은 차이에 달려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더 발전된 내일을 향해 지혜를 모아 우리 함께 나갑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6년 병오년 새해  
청주한씨중앙종친회장 한태락

# 2025년 乙巳年 시조 위양공부군 세향 봉행



좌로부터 유광(초현관), 명수(아현관), 상식(종현관)



시조부군의 세향을 엄숙하게 봉행하고 있다

초현관 유광찬성공파회장·아현관 명수강원도회장·종현관 상식절도공하현령공파회장

중앙종친회(회장 台洛)는 지난 11월 20일 (음력 10월 1일, 목요일) 오전 11시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가산리에 위치한 시조부군 묘역(충북기념물 제72호)에서 전국 각지에서 800여명의 후손이 참사한 가운데 시조부군의 을사년 세향을 경건하고 엄숙하게 봉행하였다.

초현관에는 유광(裕光)찬성공파회장, 아현관에는 명수(明洙)강원도회장, 종현관에는 상식(相植)절도공하현령공파회장, 죽관은 희민(熙珉)교위공파회장이 각각 분방되었으며 동권(東權) 제전위원회수석부위원장의 집례로 봉행하였다. (제관 분방 별항)

태락 중앙회장은 세향봉행에 앞서 진행된 식전행사의 인사말을 통해 오늘 시조부군의 세향봉행일을 맞아 쌀쌀한 날씨임에도 경향 각지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많이 참사해주신 일가 분들을 뵙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고 또 감사드린다. 한 해의 땀과 노력으로 풍요로운 수확의 결실로 조상님께 감사드림은 우리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이다. 오늘은 음력 상달 10월 초하루 날로 고려태조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할 때 큰 공을 세워 문화태위에 오르시고 삼중대광개국벽상공신에 녹훈되신 시조 위양공부군의 세향을 봉행하는 뜻 깊은 날이다. 시조 위양공부군께서는 후삼국 통일에 큰 공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후학 양성에도 크게 공헌하신 분이다. 우리 청주한문은 역사적으로 뿐만 아니라 자타가 공인하는 삼한갑족이자 명문거족이다. 조선조에 수많은 신과 공신, 대제학을 비롯해 수백의 문과급제자 등 걸출한 인재를 배출하였

고 6분의 왕비와 부마 등 왕조와도 친인척의 연을 맺었다. 시조께서 탄생하신 난곡리에는 청한각과 강론터가 있고 주된 활동을 하신 청주에는 무농정, 방정, 제단비 등 문화유적과 유산이 곳곳에 보존되어 있고, 이곳 시조부군의 묘소는 전국 8대 명당 중 으뜸인 곳이다. 오늘 시조부군의 세향봉행 후 인근의 유적지와 영동의 시조탄생지도 참배하고 가시는 뜻깊은 하루의 일정이 되기를 권유해 드린다.

중앙종친회에서는 중점과업으로 시조탄생지 성역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시조께서 탄생하신 태인소유의 부지는 매입을 완료하여 생가터 복원을 마쳤고 전문기관의 자문을 거쳐 청주한문의 역사관과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후속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많은 재원이 수반되고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대역사이다. 전국의 모든 종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총화단결하여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과 성원을 호소드린다. 또한 청주 방정보조회의 노력과 성원으로 시조부군의 유서 깊은 유적지인 방정복원 및 주변공원화사업도 본격 추진이 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사업이 완공이 되면 영동의 청한각과 역사관, 청주의 여러 유적지를 벨트화하는 관광명소로 자리매김 될 것이다. 우리 청주한문은 앞으로도 더욱 화합돈목하고 더 많은 국가 인재를 배출하여 빛나는 명성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뜻을 하나로 모아 뒷받침하는 것이 후손의 책무이자 종사과업이다. 금년 한 해 남은 기간도 잘 마무리하고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바란다.

날씨가 다소 쌀쌀하지만 시조부군 및 4위 선조님의 세향 봉행이 엄숙하고 원만하게 봉행될 수 있도록 일가분들께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우리 청주한씨의 시조(諱 蘭)는 고려 태조 왕건(王建)이 서기 918년 고려를 건국하고 이듬해 평양을 정치기반으로 삼기 위한 첫 사업으로 평양성 축조의 막중한 소임을 맡아 태조의 기대에 부응하여 신뢰를 쌓았고, 928년(태조 11년)에 후백제의 견훤(甄萱)을 정벌하기 위해 청주지역을 지날 때 10만 정벌군에게 군량미를 보급했을 뿐만 아니라 종군까지 하여 전공을 세운 공로로 최고의 품계인 삼중대광개국벽상공신(三重大匡開國壁上功臣)에 녹훈되었고, 벼슬은 정일품 문하태위(門下太尉·국무총리급)에 올랐으며 한 시대의 사표로서 훌륭한 이름을 남기시고 서세하시여 지금의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가산리에 안장되시니 나라에서 위양「威襄-천자는 신묘(神妙)한 위광(威光)으로 강산의 기이(奇異)함을 만들고 영웅(英雄)의 자품을 타고나서 나라의 훈업을 이루었다」이라는 시호

(諡號)를 받았다.

시조부군의 묘는 배위 송(宋)씨와 합조(合兆)이다. 가산(駕山) 남쪽 건좌손향(乾坐巽向)이며 속리산이 갑방(甲方) 인고로 이르기를 회룡고조(回龍顧祖)라 하여 길지라한다. 중간에 실호되어 후손들이 단을 쌓고 비를 세워 세일제를 받들기도 하였다. 숙종 14년(1688) 묘 하에 고용되던 한모(韓某)가 탐문한 바 그 동네에 사는 모(某)인이 공의 산소를 파헤치고 묘갈을 동강내어 우물바닥에 묻고 산소 전 후면에 투장하였다는 정보를 후손 성현(聖憲)에게 고하니 성현이 다시 청주병사 근(根)에게 제보하여 조사한바 중절된 비(碑)의 자획(字劃)이 완연함에 공(公)묘임을 확인하고 이듬해 후손 성우(聖佑), 형(灝), 숙(塾) 등이 제소하여 확인을 얻고 광중(廣中)을 열어보니 지석(誌石)이 발견되어 다시 묻고 개봉축하여 표석(表石)도 세웠다.

묘비는 숙종 30년(1704)에 개수(改塗)하고 신도비(神道碑)는 영조 44년(1768)에 세웠다. 비문은 후손 좌의정 익모(翼摹)가 짓고 형조판서 광희(光會)가 썼으며 한성좌윤 덕필(德弼)이 전(篆)했다. 묘소와 신도비는 1987년 3월 31일 충청북도 기념물 제72호로 지정되었다.



태락중앙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4위 선조 을사년 세향 봉행



4위(2세·3세·4세·5세) 선조의 세향을 봉행하고 있다.

### 시조묘역 내 4위단에서

지난 11월 20일(음 10월 1일, 목) 시조부군 세향 봉행에 이어 시조묘역 내 4위단에서 2세 · 3세 · 4세 · 5세 선조를 추모하는 4위 선조의 을사년 세향이 동권제전위원회수석부위원장의 집례로 질서정연하고 엄숙하게 봉행되었다. (제관분방 별항)

당일 세향을 봉행한 4위 선조는 시조 하 2세 용호군 교위공 휘영(龍虎軍校尉公 謚穎), 3세 별장 동정공 휘상휴(別將 同正公 謚尙休), 4세 상의 직

장공 휘 혁(常衣 直長公 謚奕), 5세 신호위 상장군 휘 희유(神虎尉 上將軍 謚希愈)이다.

4위 선조는 오랜 풍상과 겹치는 세란(世亂)으로 오직 휘자(諱字)와 직함만이 보책(譜冊)에 기록되어 전해지고 있을 뿐 유택(幽宅)이 실전(失傳)된 연도도 알 수 없었고 배위(配位) 또한 실전되어 성(姓)씨마저 전해지지 않아 1985년도부터 시조묘역 내 세일재 좌편에 4위단을 모시고 매년 시조 세향일에 세향을 봉행하고 있다.

제관 분방					
	시조	2세	3세	4세	5세
• 初獻官	裕光 찬성공파회장	연구 절제공파회장	탁근 직장공파회장	영호 안양공파회장	종수 장학부회장
• 亞獻官	明洙 강원도회장	복연 절제공부회장	용호 직장공부회장	재림 제주도부회장	상락 서울시회장
• 終獻官	相植 현령공파회장	윤택 절제공파	청락 절도공파	기완 제주도유사	용수 부산영도회장
• 執禮 : 동권 제전위수석부위원장	• 大祝 : 희민덕수(4위단) 제전위원				
• 謁者 : 의전 제전위원	• 陳設 : 명덕 제전위총무				
• 司樽 : 현섭명덕 제전위원	• 左奠 : 명섭 제전위원				
• 左奉 : 주호 제전위원	• 右奠 : 갑전 제전위원				
• 右奉 : 상현 제전위원	• 執事 : 현수 제전위부위원장				

### 사무처

- 접수 · 도기 : 康變(참판공파) 是根(종무부장) 鈜洙(참판공파) 仁淑(사무처)
- 앰프관리 : 成益(문정공파회장) · 예복관리 : 順子(부녀부장) 희숙이순(제전위원)

## 시조세향에 108명, 2,506만원 현성

태락회장·명수회장 200만원, 찬성공파·현령공파종중 100만원 등

지난 11월 20일에 봉행된 시조 세향에 다소 쌀쌀한 날씨임에도 많은 일가분들이 참사하고 헌성해 주시었다.

태락회장 200만원, 명수회장 200만원, 찬성공파종중(회장 유광) 100만

원, 절도공하 현령공파종중(회장 상식) 100만원 등 108명의 일가들이 2,506만원의 성금을 헌성하였으며 화환 3개가 접수되었다.

헌성해주신 일가분들께 감사드린다. (헌성한 일가분들 내역 별항)

## 제전위원 및 청장년 일가 등 20여 명

### 세향 준비 및 진행 자원봉사

2025년도 을사년 시조세향 및 4위 선조 세향에 사전 준비와 세향 당일의 안내, 질서유지 등 진행을 도운 20여명의 제전위원 및 서울, 경기 등 각 지역과 종파문중의 일가들과 일부 임원들의 열성적인 자원봉사로 차질 없이 질서정연하게 봉행 되었다.

중앙회 집행부의 지원을 받은 봉사자 중 일부인원은 세향일 하루 전에 현지로 내려가 재실에서 숙박을 하면서 세향이 끝날 때까지 청소 정리 및 천막 설치, 예복관리, 차량 출입관리, 접수

대 설치 및 헌성금 접수, 행사 후의 정리 정돈 등 사전 준비와 진행, 마무리를 위한 업무를 분담하여 차질 없이 행사가 끝날 수 있도록 봉사함으로서 집행부와 일가들로부터 많은 격려를 받았다.

### 자원봉사 일가

동권, 성의, 일용, 근준, 종수, 도영, 기학, 현수, 강섭, 시근, 현섭, 갑전, 의전, 명덕, 택영, 상현, 주호, 동학, 명섭, 석준, 순자, 이순, 금순, 희숙, 수지 (무순 · 직함생략)

##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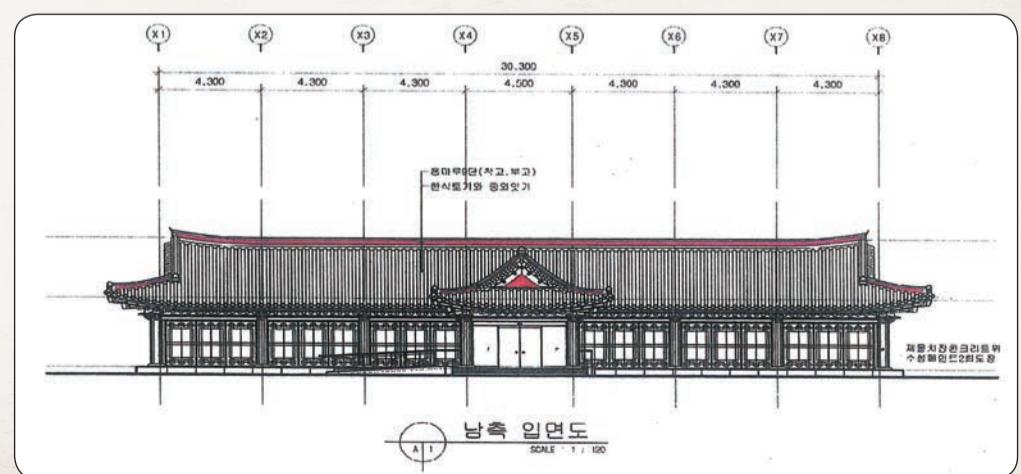
전국 각지의 청주한문 종현분들께서 물심양면 아낌없이 보내주신 큰 관심과 성원의 덕으로 시조부군 및 4위 선조님의 을사년 세향을 성황리에 봉행하였습니다.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종사 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 노력하겠습니다. 병오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내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청주한씨중앙종친회 회장 한 태 락 배상

## 청주한씨 역사관 건립 시공에 일가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시조부군 탄생지 성역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청주한씨의 역사관 건립사업에 설계 및 건축 등 시공에 관심과 조예가 있는 일가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한옥(지붕) 및 양옥(벽면) 병행, 약 100평内外 규모로 게재한 사진의 형태를 참고하시고 문의사항은 중앙종친회로 연락바랍니다.



참고용(청주한씨 역사관 입면도)

## 소혜왕후 521주기 기신제 제향 봉행

10월 22일 수요일, 서오릉 경릉에서 덕종대왕비(德宗大王妃)인 청주한씨 소혜왕후(昭惠王后 · 1437년 10월 7일(음력 9월 8일) ~ 1504년 5월 11일(음력 4월 27일) · 14세)의 제521주기 및 덕종대왕 제568주기 기신제 제향이 2025년 10월 22일(수, 음 9월 2일) 오전 11:30 경기도 덕양구 용두동 서오릉(西五陵)내 경릉(敬陵)에서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 고양특례시문화원 주최, (사)전주이씨대동종약원 경릉봉향회 · 월산대군파종회 주관으로 엄숙하게 봉행되었다.

제향을 후원하는 청주한씨 서원군파 문중에서는 길수회장을 비롯해 30여 명의 후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상락서울시회장이 아현관으로 봉무했다.

인수대비(仁粹大妃)로 더 잘 알려져 있는 소혜왕후는 세조(世祖) 때 좌의정을 지낸 서원부원군(西原府院君) 양질공(襄節公) 휘(諱) 확(確)의 따님으로 세조가 대군으로 있을 때 도원군(桃原

君)의 신분으로 있던 덕종과 결혼했으며, 수양대군(首陽大君)이 왕으로 즉위하고 도원군이 세자(世子)로 책봉되자 19세에 세자빈으로 책봉되었다. 그러나 2년 뒤 세조 3년 9월에 세자인 덕종이 급환으로 별세하자 소생인 아들 성종(成宗)이 왕위에 올랐다. 이후 성종 2년 부군이 덕종대왕(德宗大王)으로 추존되면서 소혜왕후도 인수대비로 진봉(進封)되었으며 시호는 인수자숙희숙명의소혜왕후(仁粹慈淑徽肅明懿昭惠王后)이다.

당시 여성으로서는 드물게 한문과 유교경전에 능통하였으며 불교에 귀의함이 두터워 범(梵) 한(漢) 국(國) 삼자체(三字體)의 불서(佛書)와 <열녀> <여교> <명감> <소학> 등에서 발췌하여 엮어 <내훈>(內訓)을 편찬하였다. 내훈은 조선시대 사대부 여인들의 수신서이자 당시 여성교육의 기본서가 되었다.

일반적으로 능은 앞에서 보았을 때 왕은 왼쪽, 왕비는 오른쪽으로 만드는



경릉 전경, 왼쪽 언덕(서쪽)이 소혜왕후의 능이다

### 2026년도 조선조 청주한문의 왕비 제향 일정

안순왕후(예종대왕비) : 1월 9일(금) 창릉(고양시 덕양구 서오릉로 334-32)

장순왕후(예종대왕비) : 1월 14일(수) 공릉(파주시 조리읍 삼릉로 89)

공혜왕후(성종대왕비) : 5월 9일(토) 순릉(파주시 조리읍 삼릉로 89)

인열왕후(인조대왕비) : 6월 17일(수) 장릉(파주시 탄현면 장릉로 90)

소혜왕후(덕종대왕비) : 9월 29일(화) 경릉(서오릉로 334-3, 금년에 한함)

신의왕후(태조대왕비) : 10월 29일(목) 제릉(동구릉 내 건원릉 정자각)

종묘대제 : 5월 3일(5월 첫주 일) · 종묘추향대제 : 11월 7일(11월 첫주 토)

것이 보편적이나 이와는 반대로 조성되어 있는 경릉은 동원이강릉(同原異岡陵)

의 형태로 사적 제198호, 2009년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 문정공부군 불천위 기신제 봉행



문정공부군 기신제 봉행

### 문정사 영모재에서

문정공파종회(회장 성익)는 지난 10월 10일(음 8월 19일) 오전 11시 성남시 분당구 율동 문정사 영모재(永慕齋)에서 성익회장을 비롯해 후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정공(휘 계희)부군 543주기 기신제를 엄숙하고 경건하게 봉행하였다.

초현관에는 성익문정공파회장, 아현관에는 상렬문양공파부회장, 종현관에는 진섭영홍공파원로, 축관은 양형문정공하 통례공파회장이 각각 분방되어 종호前영홍공파회장의 집례로 봉행하였다.

성익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가을비가 내리는 날씨임에도 많이 참석해 주신 일가분들께 감사함을 전하고, 차기 정

기총회는 정관개정에 의거 2026년도 1월 31일(마지막 주 토요일) 11시에 종로 3가 소재 이대감식당에서 개최함을 공지한 후 종중발전을 위해 종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당부하였다.

문정공부군은 합길도 관찰출척사를 지낸 청산군(淸山君, 譚惠)의 셋째 아들이고 조선 개국공신으로 영의정을 지낸 문간공(文簡公, 譚尙敬)의 손자이다.

字는 子順, 1423년에 탄생하시어 1441년(세종 23) 진사시에 합격하고, 1447년 식년문과에 정과로 급제하였으며, 집현전 장서각에 상주하다시피하면서 박람강기(博覽強記)로 쓰은 학식을 큰 바탕으로 하여 주요관직을 거쳐 이조판서, 중추부사, 좌찬성 등을 역임한 조선 전기의 문신이며 공신이



좌로부터 철·재윤·도영일가



좌로부터 광수·상락·순채일가

### 청주한문, 아현관 및 집준자 봉무

지난 11월 1일(토) (사)종묘제례보존회가 주관하고 국가유산청과 국가유산진흥원이 후원하여 시행하는 2025년도 종묘 추향대제가 2만여명의 관객이 찾아 성황을 이룬 가운데 종묘 정정전(오후 2시)과 영녕전(오전 10시)에서 봉행되었다.

우리 청주한문에서는 철(哲·예빈윤공파)일가가 정전 1실(태조고황후 · 신의고황후), 도영(到榮)문경공파회장이 정전 5실(성종대왕 · 공혜왕후), 상락(相洛)서울시종친회장이 영녕전 8실

시다. 1469년 남이(南怡)를 제거한 공으로 추충정난의대공신(推忠定難翼戴功臣) 3등, 1471년(성종 2) 순성명량경제좌리공신(純誠明亮經濟佐理功臣) 2등에 책록되었으며, 청렴한 선비이자 청백리로 서거정(徐居正)과 교분이 두

터우셨다. 학식과 단정한 성품으로 주위로부터 존중히 여김을 받으시다가 1482년(성종 13) 졸하셨으며, 대광보국 숭록대부 영의정에 증직되시였고 문정(文靖)의 시호를 받으셨다.

(문정공파종회 회장 성익)

## 종묘 추향대제 봉행

운영회비 (9~12월)		단위:원	영수 운영위원(경기 김포)		100,000	삼등공하 유촌공종중(회장 흥수)	100,000	영교공안공파29세	100,000
이름	금액		인희 운영위원(경기 고양)	100,000	문양공파 능매동종중	100,000	여명공파(회장천동)	100,000	
광전 자문위원(경기 여주) 24년 포함	400,000		철희 운영위원(충남 대전)	100,000	강북도봉종친회	100,000	사근종무부장	100,000	
창섭 자문위원(경기 안성) 24년 포함	400,000		재림 운영위원(제주 제주)	100,000	참의공종중(회장 상기)	60,000	승자공파종중(화장득수)	100,000	
창교 자문위원(서울 성북) 24년 포함	400,000		상현 운영위원(충남 당진)	100,000			수창서울성동구종친회장	100,000	
관우 자문위원(부산) 24년 포함	400,000		천우 운영위원(전북 김제)	100,000			성교몽계공파29세	100,000	
태교 자문위원(서울 노원)	200,000		동훈 운영위원(경기 파주)	100,000			상응참의공나주종중	100,000	
춘희 자문위원(경기 수원)	200,000		동석 운영위원(경기 화성)	100,000			상우(충남부여)	100,000	
정식 자문위원(제주 서귀포)	200,000		상기 운영위원(서울 동작)	100,000			문열공파(회장도영)	100,000	
재수 자문위원(경북 칠곡)	200,000		상용 운영위원(전북 고창)	100,000			문경공파(회장도영)	100,000	
일수 자문위원(경북 울산)	200,000		영동 운영위원(충북 청주)	100,000			목사공(회정부)(회장흥수)	100,000	
상용 자문위원(서울 금천)	200,000		흥구 운영위원(강원 원주)	100,000			명덕제전위원회총무	100,000	
상영 자문위원(경기 의정부)	200,000		태규 운영위원(강원 원주)	100,000			동학충성공파	100,000	
복섭 자문위원(전남 강진)	200,000						동열	100,000	
강락 자문위원(경북 대구)	200,000						덕수청주종친회장	100,000	
재국 자문위원(인천 강화)	200,000						대석(경남부산)	100,000	
상완 자문위원(서울 성북)	200,000						달섭자문위원((서울동작)	100,000	
대현 자문위원(서울 강북)	200,000		태락 중앙회장	29,300,000			김포시종친회	100,000	
기천 자문위원(인천 동구)	200,000		찬성공파종중(회장 유광)	300,000			기학검참공하사복시정공파	100,000	
기일 자문위원(인천 연수)	200,000		근준 부회장(경기 김포)	100,000			기천무농회회장	100,000	
임개 자문위원(경북 대구)	200,000		갑수 부회장(대전시회장)	100,000			기목검참공하사복시정공파	100,000	
광수 부회장(양해공파 회장)	1,000,000		명호(전북 정읍)	300,000			근준사숙공회장	100,000	
동권 부회장(침관공파회장)	1,000,000		의구 제전위원장	300,000			규승질경공파32세(경기김포)	100,000	
상기 부회장(참의공파 회장)	1,000,000		정수(전남 광주)	100,000			규만몽계공파34세	100,000	
상길 부회장(충정공파 회장)	1,000,000		상은(경기 화성)	100,000			권석천안시종친회장	100,000	
덕규 부회장(공안공파 회장)	1,000,000						국종양절공파(전북진안)	100,000	
석오 부회장(충정공(휘방도) 회장)	1,000,000						국충성공파32세	100,000	
홍수 부회장(검교참판공파 회장)	1,000,000						구미종친회(회장대군)	100,000	
상우 부회장(칠경공파회장)	1,000,000						공간공파(회장동춘)	100,000	
정민 부회장(정혜공파 회장)	1,000,000						검참공하사복시정공파종중	100,000	
기은 부회장(이양공파 회장)	1,000,000						강릉종친회	100,000	
정수 부회장(장도공파 회장)	1,000,000						갑전청장년회장	100,000	
동경 부회장(부산시 종친회장)	500,000						임동문양공파	50,000	
만수 부회장(제주도 회장)	500,000						영남참의공파29세	50,000	
만준 부회장(경남도 회장)	500,000						명열(경북대구)	50,000	
영오 부회장(광주시회장)	500,000						수옥	10,000	
장훈 부회장(충북도회장)	500,000								
윤수 부회장(첨정공파 회장)	500,000								
광식 부회장(울산종친 회장)	500,000								
상진 부회장(경기 군포)	500,000								
이덕 부회장(경기도종친 회장)	500,000								
일용 부회장(경기 남양주)	500,000								
판준 겸임이사(전남 진도) 24년 포함	400,000								
영 겸임이사(경기 이천) 24년 포함	400,000								
대석 겸임이사(경기 의정부)	200,000								
명덕 겸임이사(서울 종구)	200,000								
병천 겸임이사(전북 임실)	200,000								
병호 겸임이사(전북 전주)	200,000								
상복 겸임이사(충북 충주)	200,000								
상식 겸임이사(경북 경산)	200,000								
상업 겸임이사(경기 안산)	200,000								
상옥 겸임이사(전북 고창)	200,000								
상욱 겸임이사(경북 경산)	200,000								
순자 겸임이사(서울 마포)	200,000								
용구 운영위원(전남 진도)	200,000								
인수 겸임이사(서울 노원)	200,000								
재근 겸임이사(전북 완주)	200,000								
전수 겸임이사(전북 군산)	200,000								
의전 겸임이사(경기 양평)	200,000								
상돈 겸임이사(충남 공주)	200,000								
봉 겸임이사(전북 전주)	200,000								
석우 겸임이사(경기 용인)	200,000								
시근 겸임이사(경기 인천)	200,000								
귀성 겸임이사(전북 전주)	200,000								
병천 겸임이사(전북 임실)	200,000								
병호 겸임이사(전북 전주)	200,000								
상복 겸임이사(충북 충주)	200,000								
상식 겸임이사(경북 경산)	200,000								
상업 겸임이사(경기 안산)	200,000								
상옥 겸임이사(전북 고창)	200,000								
상욱 겸임이사(경북 경산)	200,000								
순자 겸임이사(서울 마포)	200,000								
용구 운영위원(전남 진도)	200,000								
인수 겸임이사(서울 노원)	200,000								
재근 겸임이사(전북 완주)	200,000								
전수 겸임이사(전북 군산)	200,000								
의전 겸임이사(경기 양평)	200,000								
상돈 겸임이사(충남 공주)	200,000								
봉 겸임이사(전북 전주)	200,000								
석우 겸임이사(경기 용인)	200,000								
시근 겸임이사(경기 인천)	200,000								
귀성 겸임이사(전북 전주)	200,000								
병천 겸임이사(전북 임실)	200,000								
영일 겸임이사(서울 서초)	200,000								
인섭 겸임이사(경기 광명)	200,000								
윤구 겸임이사(충북 청주)	200,000								
경갑 겸임이사(충북 청주)	200,000								
대현 겸임이사(충북 청주)	200,000								
광동 겸임이사(충북 청주)	200,000								
경남 겸임이사(충남 대전)	200,000								
일식 겸임이사(경북 대구)	200,000								
영식 운영위원(서울 서초) 24년 포함	400,000								
철동 운영위원(충남 당진)	200,000								
임연 운영위원(전남 곡성) 24년 포함	200,000								
경모 운영위원(제주도 제주)	100,000		장도공 하다리종중(회장 영) 24년 포함	400,000					
금섭 운영위원(충북 충주)	100,000		마포종친회(회장 순자)	250,000					
덕원 운영위원(경남 창원)	100,000		검교참판공파 종중(회장 흥수)	200,000					
상관 운영위원(경북 대구)	100,000		진주종친회(회장 영대)	200,000					
상역 운영위원(서울 영등포)	100,000		고선(충북 청주)	20,000					
단체증보비(9~12월)		단위:원	영수 운영위원(경기 김포)		100,000	삼등공하 유촌공종중(회장 흥수)	100,000	영교공안공파29세	100,000
이름	금액		인희 운영위원(경기 고양)	100,000		문양공파 능매동종중	100,000	여명공파(회장천동)	100,000

# 충성공(忠成公.諱 明澮.14世) 지석명문(誌石銘文)



충성공 한명회 영정

분청사기철화 한명회 지석(粉青沙器鐵畫 韓明澮 誌石, 충남 유형문화유산 제282호)은 현재까지 알

려진 15~16세기 지석 중 방형 형태, 표제문 · 지문 · 묘지명의 형식 등 24장(가로 20.5~23cm, 세로 31~32.5cm)의 완벽한 구성을 모두 갖춘 유일한 지석이자 지역을 대표하는 자료로 유교적 예식에 따라 최대한 국가적 예우를 갖춰 만들어졌다고 평가된다. 공주 학봉리 묘지에서 제작된 이 지석에는 충성공의 가계도, 조선 전기 계유정란 때 왕권을 바꾸는 데 중심역할을 한 행적, 부관참시 후 새로 예장한 풍습 등의 내용이 담겨 있어 문화재적 가치

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지석의 부장과 제작시기가 명확하고 장편의 지석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유물이 온전히 남아 있고, 지석의 형태와 양식에서 기존의 분청사기 지석에서는 볼 수 없는 새로운 특징이 있어 조선시대 도자사 연구에도 중요한 자료이다.

충청남도 기념물인 천안 충성공묘역에서 2000년 도굴됐다가 2009년 되찾았으며, 충성공파종중회(회장 선교)가 천안박물관에 기탁해 보존 · 관리되고 있다.

충성공 한명회(1415~1487)는 조선전기 우의정, 좌의정, 영의정 등을 역임한 문신이며, 예종의 첫 번째 왕비인 장순왕후와 성종의 첫 번째 왕비 공혜왕후의 아버지로서 두 왕의 국구라는 조선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록을 남기기도 했다.

자(字)는 자준(子濬) 호(號)는 암구정(狎鷗亭)

지면 및 분량 관계로 281호「제1~제12」에 이어 본 282호에서 「제13~제24」원문과 번역문을 게재합니다.  
(편집자 주)

## 충성공 한명회 지석 원문 및 역문

지석 사진 크기 (세×가×두께)	원 문	역 문
	제12. 6진 친정 (하단) 甲申公啓 義州下流無鎮如有賊邊	갑신년에 공이 장계를 올리기를, "의주의 하류에 진이 없으니, 만약 적이 변란을 일으키면
31.5x21.7x1.9	제13. 정해년 한명회 병으로 은퇴, 무자년 세조 돌아가심 孤城無援 熙川永興相距甚遠脫有不 虞勢難相救 置麟山鎮於義州 寧遠 郡於熙川永興之間似爲便宜 上從 之丙戌陞領議政 尋以病辭 丁亥公 以病往溫泉 命世子餞之 戊子 世祖 薨 睿宗承 遺教 命公與一二大臣 輪直禁內參決庶政 時彗星見 公 啓曰 星文示變其應可畏 昌德宮禁 禦甚疎 宜令重臣領兵衛之上從	외로운 성이 응원이 없고, 희천과 영홍이 서로 거리가 심히 멀어서 만약 뜻밖의 일이 생긴다면 멀리서 구원하기 어려운 형편이니, 의주 하류에 인산진을 도고 희천과 영홍의 사이에 영원군을 두는 것이 편리하고 유익할 것 같사옵니다." 하니, 임금께서 그대로 따랐다. 병술년에 영의정에 올랐으나 병이 깊어져 사직을 청하였다. 정해년에 공이 병 때문에 온천에 가니 임금께서 세자에게 명령하여 전송하게 하였다. 무자년에 세조가 돌아가셨다. 예종이 즉위하자 유교를 받아들여 공과 더불어 한두 명의 대신으로 하여금 서무를 결제하게 하였다. 하루는 혜성이 나타나니 공은 장계를 올려 "성문이 변을 보이니 가이 두려운 일이옵니다. 창덕궁의 금어가 매우 소원하니 마땅히 중신으로 하여금 군사를 거느리고 호위하게 하옵소서." 하니 임금께서 따랐다.
30.5x21.5x2	제14. 남이정변, 예종 돌아가심 之 未幾康純南怡等謀逆伏誅 策功 賜翊戴功臣 己丑春復拜領議政 冬 睿宗薨 成宗入承大統 貞熹王后權 同聽斷 命兼判吏兵曹 公力辭 后曰 今國恤連仍人心惶遽 非大臣自安之 時公忘 世之恩耶 公垂涕曰 此身未 死圖報國恩 但老臣才薄疎恐誤國事 后知公志堅只兼兵曹 公盡心機務 雖非兵政所管無不達	얼마 안되어 강순, 남이 등이 반역을 도모하자 복주하니 그 공을 책정하여 익대공신의 호를 내렸다. 기축년 봄에 다시 영의정을 제수하였다. 겨울에 예종이 승하하였다. 성종께서 대통을 계승하고 정희왕후가 임시 청단을 함께 하게 되자 공에게 명하여 이조와 병조를 겸직하게 하니 공이 굳이 사양하였다. 왕후께서 말하기를 "지금 국상이 연이어서 인심이 흥흉하니 대신이 홀로 편안히 있을 때가 아닙니다. 공은 세조의 은혜를 잊었습니까?" 하니, 공은 눈물을 드리우며 하는 말이, "이 몸이 죽지 않는 한 나라의 은혜에 보답하려고 생각하오나 다만 노신의 재주가 부족하여 국사를 그르칠까 염려되옵니다." 하였다. 왕후는 공의 뜻이 견고함을 알고 다만 병조판서만을 겸직하게 하니, 공이 기무에 정성을 다하여 비록 병정의 소관이 아니라도 미치지 않는 곳이 없었다
32x22.4x2.1	제15. 장서각 설치 건의 白 辛卯策勳賜佐理功臣 甲午拜左 議政 有獻議者欲革永安南道節制使 公啓曰 置南道所以制北也 雖有賊 如施愛 有南道則足以枝梧 此 世 祖創置之本意 豈可因一人小見變 萬世成憲乎 上是公議 一日公從容 啓曰 成均館乃養育人才之地 而無 書籍可讀大是 事 宜多卽經書子史 立閣以藏之 令諸生隨意抽讀	신묘년에 공훈을 책정하여 좌리 공신을 내리고 갑오년에 좌의정을 제수받았다. 일찍이 건의한 자가 있어 영안남도 절도사를 혁파하고자 하니, 공은 장계하여 말하기를, "남도를 설치한 것은 북도를 제어하기 위한 것이니, 이시애의 난과 같은 경우도 남도가 있었다면 족히 가지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이는 세조께서 창설하신 본의이니 어찌 감히 한 사람의 작은 인식으로 만세의 법을 변하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께서 공의 의견을 옳다 하셨다. 하루는 공이 조용히 장계를 올리기를, "성균관은 인재를 양육하는 땅 이온데 서적이 부족하여 크고 옳은 일들을 읽을 수 없으니 마땅히 경서자사를 둘 장서각을 세워 보관하고 여러 인재들에 그 뜻을 따라 읽도록 하소서 하였다.
32x24x1.7	제16. 명의 건주위 정벌에 군대를 다시 일으킬 것을 청하다. 上從之 公亦出費立閣 士林美之 己亥天朝將討建州衛 勅我國挾攻 上命藥城君魚有沼領兵赴之 以路 險罷兵而還 公啓曰 我國自祖宗 以來至誠事大 中國亦待之無外自平 交以下尚不可失信 沉天子乎 願更 遺重將速赴之命大臣議之 皆曰不可 再舉 公又啓曰 議者之言自安之計 老臣所措國家之大體 上從之	임금께서 그대로 따랐다. 공은 또 석각을 세우는데 사재를 내니 사람들이 기해년에 명나라에서 장차 건주위를 토벌 할 제 우리나라에 칙서를 보내어 공격을 같이 할 것을 청하니, 임금께서 예성군 어유소에게 명하여 군사를 거느리고 가게 하였는데, 길이 험하여 돌아왔다. 공은 장계하기를, "우리나라가 조종 아래로 지성껏 대국을 섬겼고, 중국도 또한 우리를 외대하지 않고 서로 교류하며 오히려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았는데, 하물며 천사이겠습니까. 원컨대 다시 중한 장수를 빨리 보내소서." 하니, 임금께서는 여러 신하에게 논의하게 하였다. 모두가 "다시 거병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하니 공이 또 장계하기를, "논의하는 자의 말은 자신이 편안하자는 계책이고, 노신이 중히 여기는 것은 국가의 대체입니다." 하니 임금께서 그대로 따랐다.

&lt;6면에 이어&gt;

 32x22x1.7	<b>제17. 명나라에 사신으로 가다 (왕비와 세자 책봉)</b> 命右議政尹弼商往征大捷而還 上謂公曰 用公之策再舉成功 予甚喜焉 賞賚偏舊 庚子冬以請封 王妣及弓角新路等事 封京敷奏得宜 帝慰諭老韓忠誠正直之臣所奏皆准 癸卯春以請封 世子赴京 帝聞公至 口口直老韓復至矣 賦彩緞犀帶白金 口口口口口人追餞通州 口口口口口口口托不聽	<p>우의정 윤필상에게 명령하여 쳐서 크게 이기고 돌아오니 주상은 공에게 이르기를, "공의 계책으로 다시 거병하여 성공했으니 내가 매우 기쁘다" 하고, 이전과 다르게 상을 주었다. 경자년 겨울에 왕비 책봉과 궁각, 새로운 길에 관한 일로써 명나라 조정에 들어가서 칙실하게 보고하니 황제는 위로하여 말하기를, "노한은 충성하고 정직한 선비다." 하고, 아뢰는 대로 모두 허락하였다. 계묘년 봄에 세자 책봉을 청하기 위하여 명나라 조정에 들어가는데, 황제는 공이 왔다는 말을 듣고, "충직한 노한이 다시 이르렀구나" 하며, 채단, 서대, 백금을 내려주었다.(그리고 본국으로 돌아갈 적에) 사람을 보내어 통주까지 정송하게 하였다.(황제의 은총이 이처럼 지중하기는) 들은 일이 없었다.</p>
 31.1x21.6x1.7	<b>제18. 한명회가 병이 깊어 휴양하다 (풍덕 별장)</b> 甲辰春 引年乞致仕 不允賜几杖 乙巳春 請浴于豐德庄村 上遣中使賜酒副以御札 冬公寢疾 上遣內醫三人療治 日遣中官問疾 御廚珍膳絡繹於逢 聞公一嘗則喜 疾革遣承旨問所欲言對曰 聖上超出百王顧臣愚昧庸有何所言 但身先朝露永辭昭代 唯此介介	<p>갑진년 봄에 나이 70세가 되어 치사 하기를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고 궤장을 내려주었다. 을사년 봄에 풍덕촌의 별장에서 목욕하니 임금께서는 중사에게 술을 내리고 따로 어찰을 내렸다. 겨울에 공이 아프니 임금께서는 내의 세 사람을 보내어 치료하게 하고 날마다 내관을 보내어 안부를 물었다. 귀한 음식을 내리어 만남을 끊이지 않도록 하였고, 공이 맛을 보았다고 들리면 기뻐하였다. 병이 위독하게 되자 주상은 승자를 보내어 하고파 하는 말을 물으니 대답하기를, "성상께서 백왕에 뛰어나셨는데 신 같은 우매한 몸이 어찌 아뢸 말씀이 있겠는가. 다만 몸이 먼저 아침 이슬같이 사라져서 영원히 밝은 세대를 하직하게 되니 오직 이것이 섭섭할 뿐이다" 하였다.</p>
 31.2x22.7x2.2	<b>제19. 한명회 사망.</b> 耳續中使問之 公曰 聖朝至矣 然始勤終怠人之常情 願慎終如始 言訖而絕 享年七十三 訃聞 上震悼命撤膳撤朝 遣中官至慰公 孤曰 公之勳德蓋世非他大臣之比 沉於寡躬義同一家 痛悼之情寧有既耶 賦謗祭加等 又遣內賜祭 命百官會葬 近世未行之典也 公稟性寬弘處心正直持論務公平而絕奇刻斷事舉網	<p>잇달아 내관을 보내어 물을 적에 공이 말하기를, "성명께서 지극하시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부지런하고 나중에는 게으른 것이 사람의 상정이오니 원하건대 나중을 삼가기를 처음과 같이 하소서." 하고, 말을 마치자 절명하니 수는 73세였다. 소식을 듣고 임금께서는 심히 슬퍼하시어 철선하고 철조하며 내관을 보내어 공을 조위하였다. 말하기를, "공의 훈덕은 세상을 뒤덮었으니 다른 신하에게 비할 바아니요. 하물며 과인에게는 의가 한 집안과 같으니, 원통하고 슬픈 마음이야 어찌 다함이 있겠는가." 하였다. 그리고 부의와 치제를 내리고, 등급을 더하였다. 또한 내신을 파견하여 제물을 내리고 백관에게 명하여 회장하게 하였다. 근세에 이렇게 행한 사례가 없었다. 공은 품성이 관홍하야 마음을 둘이 정직하였고, 논리를 주장함에 공평하여 매우 모질거나 각박함을 끊고 정사를 마음대로 하였으나 중심을 세워(만사를 일시에 해결하였다)</p>
 32x22.2x2.8	<b>제20. 한명회 성품을 평하다 (만년에 압구정에서 지냄)</b> □□略碎屑貴振一國 而無驕容功蓋三國□無矜心宜其光輔三朝壽登七褒爲一代宗臣者乎 公平生多含謨異略 初若落落級其終也如合符節世祖每稱 公吾之子房也 晚歲深以盛滿爲構置歌器於前以自警 公等亭於城南扁曰狎鷗 每欲乞骸以送老迄未償其素志 鳴呼痛哉 公摠戎務握將鍼前後二十年一時英賢	<p>■ ■ 몸을 갈고 갈아 한 나라를 귀하게 떨치게 하였으나 교만함이 없이 공을 이루었다. 대개 삼한에서 자랑하지 않으며 삼조를 도와 빛냈고 살아오며 일곱 번이나 포상되니 일대의 종신이 아니겠는가. 공이 평생 많은 기이한 괴와 다른 계략으로써 처음이 비록 위태로웠으나 마침내 그 끝에는 부질이 맞는 것과 같았으니 세조께서 매번 칭하기를 "공은 나의 자방이라" 하시었다. 만년에 병이 성하고 가득함을 스스로 경계하여 정자를 성 남쪽에 지어 편액을 압구정이라 하였다. 매번 나이 들어 사직함을 청하여 노유를 보내었으니 아직 그 소박한 뜻을 다 갚지 못하였다. 오후통재라 공이 총옹에 힘쓰고 군사일을 맡았던 전후 20년에 일대의 재주있는 자들이</p>
 30.7x21.4x2.4	<b>제21. 한명회 성품을 평하다</b> 皆出其門 公好讀史傳尤好春秋胡氏傳筆法遒勁學鮮于樞 此其大略也 戊申正月丙午葬公於淸州長命里壬坐丙向之原 己酉春配享世祖廟庭公旣葬後十七年 當弘治甲子夏 廢主肆虐禍及窀穸 公之玄堂亦露其和今上龍興首命有司禮葬正德丁卯二月甲申也 公配黃驥府夫人閔氏贈右議政大生之女生一男曰堡	<p>모두 그 문화에서 나왔다. 공은 사전을 읽기를 좋아하였고, 더욱 춘추 호씨전을 좋아하였다. 필법은 씩씩하니 선우추를 배웠다. 이것이 대략이다. 무신년 정월 병오일에 청주 장명리 임좌 병향의별에 장사하였다. 기유년 봄에 세조의 묘정에 배향하였다. 홍치 갑자(1504)에 폐주가 학정이 심하여 무덤의 광중에까지 미쳤으니 공의 현당 역시 그 평화로움을 잊었다. 지금 주상께서 증위하시어 유사에게 명하여 예장하라 했으니 정덕 정묘 2월(1507) 갑신(10일)이다. 공의 배위는 황려부부인 민씨요, 증우의정 대생의 파님이다. 아들 하나를 낳으니 보인데</p>
 31.5x24x2	<b>제22. 한명회 후손 가계</b> 登武舉參佐理功臣封琅城君 女長歸奉禮申澍 次歸鈴川君尹儒 次章順王后葬恭陵 次恭惠王后葬順陵副室生七男六女 琅城娶左叅贊李塙之女 生二男一女 長曰景琦進士 次景琛尙恭慎翁主封淸寧尉女歸正字李光 奉禮生三男 曰從治僉知中樞 次從沃坡州牧使 次從護禮曹參判 鈴川生二男五女 秀崗直略	<p>무과에 합격하여 좌리공신에 참여하였고 낭성군에 봉하여졌다. 큰 딸은 봉례 신주에게 출가하고 다음은 영천군 윤반에게 출가하고 다음은 장순왕후로서 공릉에 장사하였고, 다음은 공혜왕후로서 순릉에 장사하였다. 부실에서 7남 6녀를 낳았다. 낭성군은 좌참찬 이훈의 딸에게 장가들어 2남 1녀를 낳았으니 큰 아들은 진사인 경기요, 다음은 경침이니 공신옹주에 장가들었고 청령위에 봉하여졌다. 딸은 정자 이광에게 출가하였다. 봉례가 3남을 낳으니 종흡은 첨지중추요 다음 종옥은 파주 목사요, 다음 종호는 예조참판이다. 영천군이 2남 5녀를 낳으니, 아들은 수강으로 선략</p>
 33.6x22.5x1.7	<b>제23. 한명회 후손가계 및 최숙생의 명 (한명회의 공덕을 기리는 시)</b> 將軍曰秀峯敦寧奉事 女長歸主簿洪義孫 次歸進士李守諒 次歸幼學文眉壽 次歸判官梁淑 次歸幼學崔命孫 恭陵誕仁城大君不祿 公之孫景琦與我交且久 屬余爲銘 銘曰 天地草昧六龍天飛 庶明攀鱗爰有韓公 奮劖而從 玉立長身 手扶日月 破昏爲明萬物 계춘 厥功煥爍 厥德厚重 勃也 其倫 傲亮三朝勳業	<p>장군이다. 수륜은 돈령봉사요, 큰 딸은 주부 홍의손에게 출가하고, 다음은 진사 이수량에게 출가하고, 다음은 유학문미수에게 출가하고 다음은 판관 양숙에게 출가하고, 다음은 유학 최명손에게 출가하였다. 공릉은 인성대군을 낳았으니 녹이 없었다. 공의 손인 경기와 더불어 내가 친교있은 지 오래되어 내게 의뢰하여 명을 짓는다. 명에 말하기를 천지가 어두울때 유통이 하늘로 날아 올라 밝은 광명과 공명을 이루었도다. 이에 한공이 있어 검을 뽑아들고 따랐다. 몸은 장신으로 손으로 해와 달을 도우니 어둠을 깨치고 밝게 하였고 만물이 봄으로 돌아오게 하였도다 그 공 불꽃처럼 빛나고 그 덕은 두텁고 중하여 밝게 드러났도다 인륜을 따라 삼조를 진실로 보좌하여 그 훈업이</p>
	<b>제24. 최숙생의 명 (한명회의 공덕을 기리는 시)</b> 彌隆 汾陽與隣 埋辭丘竊質諸神明 萬世無磷	<p>매우 크다 분양은 이웃하였고 외람되어 취하는 것은 묻었으나 신명에 깊이 근본하였으니 만세에 영원하리라</p>

## 중앙종친회 회장단회의 개최

시조탄생지, 역사관 건립 등 성역화사업 추진 결의



태락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앙종친회(회장 태락)는 지난 11월 5일 오전 11시 갑수명예회장, 길수, 동경, 유광회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회 회의실에서 하반기 회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종사 중점과업 추진 및 현안문제와 발전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2025년도 주요 경과 및 종사운영 현황에 대한 보고에 이어 중점 추진과업으로 추진 중인 시조부군 탄생지 성역화 2단계 사업 추진 및 재원 조달방안과 원로회원 추천 및 추대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태락 중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바쁘신 가운데에도 갑수명예회장님과 길수, 동경, 유광회장님을 비롯하여 많이 참석해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시는 회장단 분들께 감사함을 전하고 회장단 분들의 고견을 받들어 종사를 운영하면서 청주한문의 화합과 돈독을 통해 종사발전을 도모하고 시조탄생지 성역화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명문 청주한문의 긍지를 더욱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회장단분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당부하였다.

갑수명예회장은 현재 추진 중인 성역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이 되고 내년 중에 훌륭한 결실로 마무리 될수 있도록 좋은 의견과 실행으로 태락회장과 집행부에 큰힘이 되도록 적극 동참하고 성원해 나가자고 격려하였다.

이날 회의를 통해 시조부군의 생가터는 매입하여 중앙종친회 명의로 이전 등기를 완료하였고 후속사업으로 전문 기관의 자문을 거쳐 청주한문의 역사관 건립과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2단계 성역화사업 추진을 의결하고 재원조달 실현을 위해 뜻을 모아 추진해 나가자고 결의하였다. 또한 원로회원의 추천 기준 및 배정 인원을 확정한 후 존경과 신망을 받는 원로회원을 조속한 시일내에 추천할 것을 결의하였다.

## 한병헌일록, 경기도 유형문화 유산 지정



경기도 유형문화 유산으로 지정된 한병헌일록

용인시박물관 소장 유물인 한병헌일록(韓秉憲日錄)이 경기도 유형문화 유산으로 지정됐다. 한병헌일록은 18세기 조선 영조대에 용인 양지에 살던 남인계 유생 한병헌(1710~1747. 문정공파 23세. 字叔章)이 1732년부터 1740년까지 직접 쓴 일기 2권으로, 과거 준비 과정과 시험장 경험, 천연두·학질

등 전염병 치료와 민간요법,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 상장례 기록, 환곡 운영 등 지역 사회의 다양한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으며, 한양 유람 등 개인적 경험까지 기록돼 지역 생활사 연구를 위한 학술적 가치가 크다는 평가를 받았다.

용인시박물관은 지난 2023년부터 일기의 번역과 연구를 진행해 지난해 1월 경기도에 문화유산 지정을 신청했고 이후 두 차례의 심의를 거쳐 문화유산으로 최종 확정됐다.

1747년 진사시에 합격했으나 같은 해 3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한병헌은 역사에서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지만, 그의 일기는 경기 남부 지역 남인계 유생을 중심으로 한 선비들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이다.

## 장학회, 2025년도 제2차 이사회 개최

2026년도 사업계획 · 예산(안) 및 임원 개선 등 의결



제2차 장학회 이사회

(재)청주한씨장학회(이사장 태락)는 지난 11월 25일 태락 이사장을 비롯해 이사 및 감사와 장학후원회장 등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회 회의실에서 2025년도 제2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의안 심의와 장학재단의 발전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2025년도 주요 사업실적 보고에 이어 2026년도 주요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 가결하였으며, 임원 개선을 통해 임기가 만료되는 태락이사장, 추태이사, 관우이사, 동경이사, 기인이사와 길수 감사는 재선임으로 연임하고 종수장학부회장을 신임이사로 선임 의결하였다.

태락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사회에 많이 참석해 주신 임원분들께 감사 를 전하고 임원 및 종파문중과 종원분들의 성원으로 어느정도 기금이 확충이 되었지만 점차 예금금리도 인하하는 추세로 접어들고 있어 아직은 충분한 수준으로 장학금을 지원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훌륭한 후진양성을 위해 장학 재단의 기금확충 등 장학사업을 활성화하고 과실소득 또한 증대할 수 있는 수익사업 실현방안을 중점사업으로 적극 검토 추진하여 청주한문의 위상에 걸맞게 이끌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할 것임을 밝히고 임원분들의 고견과 적극적인 성원을 당부하였다.

## 한옥천일가, 2025년 여수시민의 상 수상



한옥천(양혜공파 이사 · 사진)일가가 지난 10월 여수시민의 날을 맞아 지역사회 발전, 향토 문화 보존,

시민 복지향상 등에 기여했거나 탁월한 재능으로 여수의 명예를 국내외에 알린 인물에게 수여되는 2025년도 여수시민의 상을 수상했다.

여천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장인 한옥천 일가는 1984년부터 다양한 사회단체 활동에 헌신해 왔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행정상담위원으로서 이·통장 쳐우 개선을 주도 했으며, 여수시 주민자치위원회 회장을 역임하며 주민 편의시설 확충과 불편 해소,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신설 등 시민 생활 편의와 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얻었다.

(양혜공파종종 동엽 총무)

## 운영회비 및 종보구독료 계좌 안내

▲ 계좌송금 국민은행 009901-04-016841

(예금주 청주한씨중앙종친회)

▲ 종보에 첨부된 지로용지 이용 (입금자 성명 및 주소 등 기재)

▲ 성명만으로 송금 시 중앙종친회로 연락 바랍니다(동명이인 다수)

청주한씨중앙종친회